

#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직물 상품의 종류와 무역 특성 -면직물, 견직물, 모직물을 중심으로-

김 순 영<sup>†</sup>

전북대학교 의류학과/전북대학교 인간생활과학연구소

## Types and Trade Characteristics of Textile Products Imported from Japan during the Port-Opening Era -Focusing on Cotton, Silk, and Woollen Cloths-

Soon-Young Kim<sup>†</sup>

Dept. of Fashion Desig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May 4, 2021; Revised June 27, 2021; Accepted July 30, 2021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ypes of cotton, silk, and woollen products imported from Japan during the port-opening period and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import trade related to these textile products. Data were obtained from the Japanese trade statistics pu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between the late 19<sup>th</sup> and the early 20<sup>th</sup> centuries. Several key findings were made from these data. First, at least 24 types of cotton fabrics, 13 silk fabrics, and 16 woollen fabrics imported from Japan were identified. Several types of weaves that can be found in the present day were also identified. Second, the total import of textiles during the port-opening period made up 33.7% of the total imports from Japan, indicating that textiles were an important aspect of import trade with Japan. The value of textile imports from Japan tended to increase overall during this time. Cotton fabrics and silk fabrics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continuously, while woollen fabrics showed a trend of gradual increase over repeating periods of increase and decrease. It is apparent from examining the ratio of Japanese and foreign products that cotton fabrics, silk fabrics, and woollen fabrics show different characteristics.

**Key words:** Imported textile products, The port-opening era, Trade between Korea and Japan; 수입 직물 상품, 개항기, 한국 일본 간 무역

## I. 서 론

개항기는 1876년 개항 이후부터 1910년 한일강제병

합 이전까지로, 이 시기는 한국이 개항장을 통한 국제 무역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외국으로부터 다양한 물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거나 한국의 물산을 대량 수출하면서 한국인들의 생활과 경제가 크게 변화한 시기이다. 개항 이전에는 육로 무역을 통해 한정된 수량의 물품이 국내에 수입되고 부유층이나 상류층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소비되었지만, 개항 이후부터는 생필품을 비롯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크게 확대되어 대중에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soonyoung1.kim@gmail.com](mailto:soonyoung1.kim@gmail.com)

본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8038075).

미친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Kim, 2018). 따라서 개항기는 한국인의 생활문화가 격변한 시기로서 역사적 중요성이 큰 시기이다.

한국은 1876년 일본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일명 강화도조약)를 체결함으로써 최초로 항구를 개방했으며, 뒤이어 1882년 미국, 중국과, 그리고 1883년 영국과 각각 통상조약을 맺음으로써 문호를 개방하고 국제 무역에 동참하게 되었다. 일본은 한국이 연안 항구를 개방한 최초의 국가이며, 1876년부터 1882년까지 조선의 유일한 해상 무역 상대국이었다. 1882년 이후부터 일본 외 다른 나라와의 통상이 시작되었지만 일본은 여전히 개항장 무역에서 가장 비중 있는 역할을 한 무역 상대국이었다(Choi, 1973).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시작된 한국의 근대적 대일(對日) 무역에서 일본은 관세 상의 특혜, 유리한 정치적 배경, 지리적 인접성 등의 조건을 활용하여 상권을 빠르게 성장시키며 무역의 주도권을 확보해갔다(Yoo, 2007). 일본은 개항 초기에는 대개 서구산 공장 제품의 중개 무역을 통해 상업과 무역의 입지를 확장시키다가 1880년대부터 일본 내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산 물품의 수출을 더욱 증대시키게 되었다(Yoo, 2007).

한국은 개항기 대외(對外) 무역을 통해 직물, 의복, 모자, 양말, 신발, 허리띠와 주머니, 의복 부속품, 우산과 양산, 가방, 액세서리 등 매우 다양한 상품들을 수입하였다(Kim, 2018). 기존에 없던 다양한 의류 직물 상품들이 시장에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의생활도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개항기 한국의 대외 수입 무역에서 면직물은 수입 물량과 가액이 가장 높은 상품이었으며, 견직물은 면직물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직물 중 면직물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수입액이 높은 상품이었다(Kim, 2018). 일본과의 무역 거래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나 두 직물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개항기 대외수입 무역에서 마직물과 모직물은 수입액이 견직물보다 낮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Kim, 2018). 특히, 모직물은 마직물보다 훨씬 더 수입액이 낮은 직물이었다(Kim, 2018). 그러나 개항기 대일 수입 무역에서 모직물의 수입액은 비록 견직물보다는 낮지만, 마직물의 15배 수준으로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직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직물은 개항기 수입 무역에서 특히 일본과의 거래 비중이 높은 직물로서 중요한 상품이라 하겠다.

복식사 분야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근대 시기의 의류 직물 수입품 또는 무역에 관한 연구로는 Hong(2005), Park(2014), Kim and Ha-Brookshire(2016), Kim(2018) 등의 연구가 있다. Hong(2005)은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의 여성 장신구의 수용 전개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그의 연구는 장신구의 종류, 수입과 유통 과정, 장신구 수용의 사회적 의의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Park(2014)은 개항기 및 일제강점기 수입 직물의 종류를 파악하고 수입 직물의 수용 과정과 의생활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 통계 자료와 여러 기관의 보고서들이 연구에 일부 활용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일제강점기 간행 자료가 이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기인 1876년부터 1910년까지 개항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아니다.

Kim and Ha-Brookshire(2016)와 Kim(2018)의 연구는 개항기에 초점을 두고 의류 직물 수입 상품과 무역을 다루고 있다. Kim and Ha-Brookshire(2016)는 1882년부터 1910년까지 양목의 종류와 수입 규모를 분석하고 양목이 미친 사회적 영향을 고찰하였다. Kim(2018)은 연구대상을 의류 직물 수입품 전체로 확대하여 수입품의 종류와 수입 관세율을 분석하고 각 품목별 연차별 수입 추이를 파악하였다. 이들 연구는 개항기 의류 직물 관련 수입 상품의 종류를 파악하고 연도별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무역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 연구자료 또한 영국 외무성이 발행한 한국에 관한 보고서를 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대 시기 일본 대장성(大藏省) 관세국이 발행한 두 종류의 무역 통계 자료 즉, 『조선구무역 1877~1884 팔개년대조표』(Bureau of Customs, 1909)와 『대일본외국무역연표』(Bureau of Customs, 1885~1911/1912)를 바탕으로,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직물 상품, 그 가운데 특히 면직물, 견직물, 모직물에 초점을 맞추어 상품의 종류를 파악하고 대일 직물 수입 무역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기는 개항기(1876~1910년)이므로 시대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 말기와 대한제국 시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두 종류의 무역 통계 자료에서는 이 시기에 대해 1896년 이전까지는 ‘조선(朝鮮, Korea)’이라고 명명하고, 1897년 이후부터 1909년까지는 ‘한국(韓國, Korea)’, 그리고 1910년

에는 영문 첫 글자를 K로 바꾸어 ‘한국(韓國, Korea)’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연구자료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상당기간 등장하고 있고, 한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명이기도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선과 한국을 통칭하여 한국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항기 한국 일본 간 거래된 직물 수입 상품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직물 수입 무역의 규모와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개항기 한국과 일본의 직물 무역 관계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위상을 가능하고, 근대 시기 직물 문화의 변화와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면직물, 견직물, 모직물 상품의 종류를 살펴본다.

둘째, 면직물, 견직물, 모직물을 중심으로 개항기 대일 직물 수입 무역의 특성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개항기 34년간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직물류 총수입액과 직물 유형별 총수입액 규모를 살펴보고, 각 직물 유형별로 수입액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며, 일본산과 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다.

### 2. 연구자료

#### 1) 「조선구무역 1877~1884 팔개년대조표(朝鮮舊貿易 自明治十年 至同十七年 八箇年對照表)」

「조선구무역 1877~1884 팔개년대조표」(Bureau of Customs, 1909)(이하 「팔개년대조표」)는 일본 대장성 관세국이 편찬한 『대일본외국무역 1868~1885 십팔개년대조표(大日本外國貿易 自明治元年 至同十八年 十八箇年對照表)」(Bureau of Customs, 1909)의 권말 부록으로, 개항 이후 한국에 주재한 일본 영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취합된 통계 문서이다. 이 자료에는 1877년(明治10) 하반기(7~12월)부터 1884년(明治17) 1월까지의 한국 일본 간 무역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는 품목별 누년 통계표 형식이며, 수출입 상품 종류별로 수량과 가격이 작성되어 있다.

「팔개년대조표」는 1877년 7월부터 1884년 1월까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 품목과 거래액을 알 수 있는 자료이지만, 또한 이 자료는 개항 초기 한국의 대외 무역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기도 하다(Choi, 1973). 개항 초기에 일본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무역 상대국이었으므로, 당시 한국 일본 간 무역 거래 현황은 곧 한국의 전체 대외 무역 현황의 가능자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팔개년대조표」에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상품의 명칭이 일본어(한자 또는 가타가나)와 영어로 기록되어 있어 개항 초기 한국에 들어온 직물 수입품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 상품의 수입량과 가격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어 개항 초기 직물 수입 규모와 연도별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

#### 2) 『대일본외국무역연표 1884~1910(大日本外國貿易 年表 明治17年~明治43年)』

『대일본외국무역연표』(Bureau of Customs, 1885~1911/1912)(이하 『무역연표』)는 근대 시기 일본 대장성 관세국이 거의 매년 발행한 일본의 대외 무역 통계 자료이다. 『무역연표』는 수록하고 있는 무역 정보량이 대단히 풍부하고 상세하여 근대 시기 일본의 대외 무역 역사를 통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 자료이다. 『무역연표』는 1882년(明治15)부터 1928년(昭和3)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 기록이 확인되는 1884년(明治17) 2월부터 한일강제병합 이전인 1910년(明治43) 8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무역연표』에 포함된 통계 항목과 연표 작성 방식은 연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지니고 있다. 『무역연표』에 수록된 내용은 대단히 방대하며 정리된 항목들이 수십 가지에 달한다. 그 가운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주요 항목은 수출품국별표(輸出品國別表), 수입품국별표(輸入品國別表), 재수출품국별표(再輸出品國別表), 재수입품국별표(再輸入品國別表)이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 관계에서 볼 때, 일본의 수출품은 한국의 입장에서 수입품이며 일본의 수입품은 한국의 입장에서 수출품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을 주로 살펴보고자 하므로 ‘수출품국별표’와 ‘재수출품국별표’를 상세히 검토하였다. 그 외, 필요시에 다른 항목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수출품국별표’와 ‘재수출품국별표’에서 한국과의 거래 내용을 선별하고,

특히 직물과 관련된 상품들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무역연표』에 기록된 상품의 명칭은 「팔개년대조표」와 마찬가지로 일본어(한자 또는 가타가나)와 영어로 병기되어 있어 1884년부터 1910년까지 개항기 동안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직물 상품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직물 종류와 함께 연도별 수입 가액의 규모와 변화를 살펴보았다.

### 3. 분석방법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직물 상품의 종류를 살펴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팔개년대조표」와 『무역연표』에서 직물류로 판단되는 모든 상품의 종류를 찾아낸 후, 원문의 흐름에 따라 면직물, 견직물, 모직물, 마직물, 기타로 직물 유형을 나누고 상품을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면직물, 견직물, 모직물 3개 유형에 한하여 살펴보고자 하므로 해당 3개 유형을 자세하고찰하였다. 둘째, 각각의 직물 유형에는 실도 포함되어 함께 정리하였다. 실은 대개 직사(織絲; yarns)와 봉사(縫絲; threads)로 나누어지는데, 직사는 방직용 실을, 봉사는 재봉용 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각각의 직물 유형에 교직물이 있는 경우에는 교직물을 포함하여 함께 정리하였다. 원문 자료에는 견면교직과 모면교직이 등장하는데 견면교직은 견직물에 이어서, 모면교직은 모직물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원문의 흐름을 따라 견면교직을 견직물에, 모면교직을 모직물에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넷째, 원자재에 해당하는 원면, 견솜 등 섬유류는 직물 유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직물의 수입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모든 수입액은 엔(円, Yen) 단위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통화(엔) 표기 방식은 「팔개년대조표」에서는 소수점 두 자리, 『무역연표』에서는 소수점 세 자리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사오입하여 정수 단위로 통일하였다. 둘째, 직물 수입액의 연도별 변화 분석에서는 3개 연도(1877, 1884, 1910)의 월별 합산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였다. 「팔개년대조표」 1877년은 7~12월의 집계이며, 『무역연표』 1910년은 1~8월의 집계이다. 개항 시점과 한일강제병합 시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따라서 1877년과 1910년의 가

액은 1년 가액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1884년의 경우에는 「팔개년대조표」에서는 1월의 집계와 있고, 『무역연표』에서는 2~12월의 집계와 있다. 따라서 1884년의 수입액은 「팔개년대조표」와 『무역연표』의 집계를 합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대부분의 연도에서 ‘일본산(內國產)’과 ‘외국산’의 원산지 구분이 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직물 수입액의 연도별 변화에 반영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다만, 『무역연표』 1884년(2~12월)과 1885년의 자료에서는 원산지 구분 대신 ‘수출’과 ‘재수출’의 구분이 존재하였다. 원문의 맥락을 통해 볼 때, 수출은 일본산을, 재수출은 외국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개 연도에 한해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추정 구분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논의

### 1. 직물 수입품 종류

#### 1) 면직물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면사 및 면직물의 종류는 <Table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수입 면사로는 면직사(綿織絲; cotton yarns), 면봉사(綿縫絲; cotton threads), 설면사(屑綿絲; waste cotton yarn), 면선(綿線, twines of cotton) 총 4종의 실이 확인되었다. 설면사는 한자와 영문명으로 볼 때 부스러기 면솜으로 만들어진 실로 추정된다. 면선은 1883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관세 시행 세칙인 「조선국해관세칙(朝鮮國海關稅則)」(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d.)(이하 「해관세칙」)에서도 기록된 상품인데, 「해관세칙」을 분석한 Kim(2018)의 연구에서는 면선의 정체를 면실의 일종으로 추정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1900년 『무역연표』에서 면선이 영문으로 ‘twines of cotton’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따라서 면선은 2개 이상의 면 단사(單絲)를 꼬아서 만든 면 합사(合絲)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 면직물은 24종 이상으로 매우 다양했으며 조직에 따라 평직, 능직, 주자직, 익직, 파일직, 크레이프, 기타로 분류되었다. 평직으로는 생금건(生金巾; shirtings, gray), 색금건(曬金巾; shirtings, white), 색금건(色金巾; shirtings, dyed), 문금건(紋金巾; shirtings, figured), 비금건(緋金巾; Turkey-red/Turkey-red cambrics), 천축포(天竺布; T. cloths), 한랭사(寒冷紗; Victoria lawns), 갱사(更紗; chintzes), 시팅(シーチング; cotton tissues,

Table 1. Cotton cloths imported from Japan

Types	English name	Japanese name (Korean name)*	First import year	Production place	
Yarn & thread	Cotton yarns	綿織絲	1878/1892	F/J	
	Cotton threads	綿縫絲	1884	F	
	Waste cotton yarn	屑綿絲	1892/1899	F/J	
	Twines of cotton	綿線 (綿線)*	1900	F	
Shirtings,	Gray	生金巾 (原色布)*	1877/1898	F/J	
	White	曬金巾 (白色布/玉洋木)*	1884	F	
	Dyed	色金巾 (色布)*	1884	F	
	Figured	紋金巾 (紋布)*	1885	F	
Tabby	Turkey-red/Turkey-red cambrics	緋金巾 (紅色布)*	1879/1898	F/J	
	T. cloths	天竺布 (洋布)*	1877/1898	F/J	
	Victoria lawns	寒冷紗 (洋紗)*	1878	F	
	Chintzes	更紗 (印花布)*	1877	F	
Twill	Cotton tissues, sheeting	シーチング	1902	J	
	Shirtings, twilled	綾金巾 (斜紋布)*	1877/1898	F/J	
	Cotton drills	雲齊布 (雲齊)*	1884/1904	F/J	
Tabby or twill	Monpas, cotton flannel	紋巴, 綿フランネル (紋羽)*	1884/1899	J/F	
Fabric	Satin	Cotton satins/Italians	綿縞子 (綿縞子)*	1880/1907	F/J
	Gauze	Cotton balzarine	綿紹 (綿紹)*	1882	F
	Pile weave	Cotton velvets	綿天鵝絨 (棉天鵝絨)*	1878	F
	Crape	Cotton crapes /cotton tissues, chijimi	綿縮	1894	J
Others	Cotton piece goods, unenum /cotton tissues, all other	(其他)諸綿布類	1877/1884	F/J	
	All other pure cotton tissues	其他ノ純綿布	1907	F	
	Cotton goods, Corean	朝鮮綿布類	1884	F	
	Cotton goods, Chinese	支那綿布類	1891	F	
	Cotton tissues, white /imitation nankeens	白木綿	1899	J	
	Imitation nankeens, dyed	色木綿	1910	J	
	Striped tissues	縞木綿	1910	J	
	Cotton tissues, made of gassed yarn/gasutoori	瓦斯絲織	1898	J	

Adapted from Bureau of Customs (1909). pp. 1–18; Bureau of Customs (1885/1912). pp. 106–110, pp. 159–161, pp. 178–183, p. 196; Bureau of Customs (1886/1912). pp. 107–111, pp. 158–159, pp. 174–179, p. 190; Bureau of Customs (1887/1912). pp. 113–121; Bureau of Customs (1888/1912). pp. 117–125; Bureau of Customs (1889/1912). pp. 118–126; Bureau of Customs (1890/1912). pp. 120–127; Bureau of Customs (1891/1912). pp. 120–128; Bureau of Customs (1892/1912). pp. 117–125; Bureau of Customs (1893/1912). pp. 120–128; Bureau of Customs (1894/1912). pp. 126–133; Bureau of Customs (1895/1912). pp. 125–134; Bureau of Customs (1896/1912). pp. 125–135; Bureau of Customs (1897/1912). pp. 125–134; Bureau of Customs (1898/1912). pp. 133–143; Bureau of Customs (1899/1912). pp. 152–163; Bureau of Customs (1900/1912). pp. 163–172; Bureau of Customs (1901/1912). pp. 155–164; Bureau of Customs (1902/1912). pp. 161–171; Bureau of Customs (1903/1912). pp. 173–184; Bureau of Customs (1904/1912). pp. 174–186; Bureau of Customs (1905/1912). pp. 174–185; Bureau of Customs (1906/1912). pp. 174–185; Bureau of Customs (1907/1912). pp. 194–205; Bureau of Customs (1908/1912). pp. 245–258; Bureau of Customs (1909/1912). pp. 233–246; Bureau of Customs (1910/1912). pp. 209–221; Bureau of Customs (1911/1912). pp. 207–220.

\*: Korean names are taken from Kim's (2018) study.

J: Japanese production; F: Foreign production; F/J: Foreign production in the early stages and Japanese production either in the latter stages; J/F: Japanese production in the early stages and Foreign production either in the latter stages.

sheeting) 등 9종이 있었다. 금건(金巾, カナキン)은 면 단사를 이용하여 치밀하게 짠 광폭 면직물의 일종으로 대부분 평직이며 표백 여부, 색상과 무늬 등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었다(“金巾 [Shirting]”, n.d.). 한국에서는 주로 포(布)나 양목(洋木)으로 표기되었는데, 표백한 것을 옥양목이라고 했다(Table 1). 천축포는 천축목면이라고도 하며 금건보다 약간 두꺼운 광폭의 평직 면직물이다(“天竺木綿 [T. cloths]”, n.d.). 한랭사는 가느다란 면사를 성글게 평직으로 짜서 풀을 먹인 것으로 얇고 뽀뽀한 것이 특징인데(“寒冷紗 [Victoria lawns]”, n.d.), 한국에서는 주로 양사(洋紗)로 표기되었다. 갱사는 여러 가지 무늬를 2색 이상으로 날염한 면직물이다(“更紗 [Chintz]”, n.d.). 시팅은 가장 저렴한 표백 면직물의 일종으로 시트용 원단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유래된 천이다(“シーチング [Sheeting]”, n.d.).

능직으로는 능금건(綾金巾; shirtings, twilled)과 운제포(雲齊布; cotton drills)가 수입되었다. 능금건은 능직으로 제직된 금건이며, 운제포는 두꺼운 능직 면직물로 일본에서는 주로 벚선 바닥이나 작업복에 이용된 천이다(“雲齋織 [Cotton drills]”, n.d.). 평직 또는 능직인 직물로는 면플란넬(紋巴, 綿フランネル; monpas, cotton flannel)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플란넬은 면사로 플란넬을 모방하여 짠 면직물이다(“綿フランネル [Cotton flannel]”, n.d.). 면플란넬은 기타제면포류(其他諸綿布類)와 함께, 일본산 면직물 가운데 최초 수입 연도가 1884년으로 가장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자국 내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한 직물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주자직으로는 면주자(綿縵子; cotton satins/Italians)가, 익직으로는 면려(綿縵; cotton balzarine)가 수입되었다. 면주자는 주자직으로 직조한 부드러운 면직물이다(“What is cotton satin?”, 2021). 면려는 경사와 위사 모두 면사를 사용하여 여직(縵織)으로 직조한 천으로 여성용 여름 옷감에 주로 이용된다(“綿縵 [Cotton balzarine]”, n.d.). 여직은 꼬임 직물 즉 익직물(leno weave or gauze weave)의 일종으로 한국의 전통 직물인 향라와 같이 평직과 사직이 배합된 것을 말한다(Kim, 1992).

파일직으로는 면천아용(綿天鵝絨; cotton velvets)이, 크레이프면축(綿縮; cotton crapes/cotton tissues, chijimi)이 수입되었다. 면천아용은 영문명으로 볼 때 면벨벳이라고도 불렀음을 알 수 있는데, 면벨벳은 면사로 파일을 만든 면파일직물로 흔히 벨벳(velveteen)

이라고도 한다(Gong, 2013). 면축은 면사를 원료로 한 크레이프 직물이다(“綿縮 [Cotton crapes]”, n.d.).

조직을 추정할 수 없는 면직물은 기타로 별도 분류하였다. 여기에는 (기타)제면포류(其他諸綿布類; cotton piece goods, unenum/cotton tissues, all other), 기타순면포(其他 / 純綿布; all other pure cotton tissues), 조선면포류(朝鮮綿布類; cotton goods, Korean), 지나면포류(支那綿布類; cotton goods, Chinese), 백목면(白木綿; cotton tissues, white/imitation nankeens), 색목면(色木綿; imitation nankeens, dyed), 호목면(縞木綿; striped tissues), 와사사직(瓦斯絲織; cotton tissues, made of gassed yarn/gasutoori) 등이 포함되었다.

기타 면직물 가운데 조선면포류와 지나면포류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것이 다소 특이하다. 조선면포류는 1884년과 1888년 『무역연표』에 등장하는데, 이는 한국산 면포가 일본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한국으로 재수입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나면포류는 1891년 『무역연표』에 등장하는데, 일본의 중개 무역에 의해 한국으로 수입된 중국산 면포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또는 중국산 직물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경우가 흔하지는 않았으나,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직물에 일본산이나 서구산만 있었던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백목면은 1899년부터 한국으로 상당량 수입되는 일본산 면직물로 주목할 만한 상품이다. 영문으로 ‘cotton tissues, white’ 또는 ‘imitation nankeens’라고만 되어 있어 조직을 특정하기 어려운 직물이다. 다만, 낸킨(nankeen)이 능직으로 짠 중국 난징의 담황색 면직물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낸킨 [Nankeen]”, n.d.), 백목면은 낸킨과 외관이 유사하되 표백한 면직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낸킨은 1880년대 후반부터 1890년대 초반까지 한국으로 꾸준히 수입된 중국산 면직물이다(Kim & Ha-Brookshire, 2016). 일본이 중국산 낸킨의 모방 직물을 만들어 1899년 이후부터 한국에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중국산 낸킨과 경쟁하게 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색목면은 영문으로 ‘imitation nankeens, dyed’라고 되어 있어 염색한 낸킨으로 이해되며, 호목면은 ‘목면(木綿)’이라는 한자와 ‘striped tissues’라는 영문명으로 볼 때 줄무늬가 있는 면직물임을 알 수 있다.

와사사직은 영문명으로 볼 때 가스사(gassed yarn)로 직조된 면직물임을 알 수 있다. 가스사는 뜨거운 가

스 불꽃에 빠르게 노출시킨 면사로 이 공정을 거치면 실의 보풀이 제거되어 더 밝고 매끄러운 외관이 만들어진다(“Cotton yarn”, 2017).

2) 견직물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견사 및 견직물의 종류는 <Table 2>에 정리된 바와 같다. 면사와 달리 견사는 개항기 말기인 1909년 이후가 되어서야 수입 기록이 등장한다. 1909년 옥사(玉絲; dupion)가 수입되었으며, 1910년 방적견직사(紡績絹織絲; silk yarns, spun)가 수입되었는데 모두 일본산 견사이다. 옥사는 쌍고치에서 뽑은 견사로 굵고 마디가 있는 특징이 있다(“옥사 [Oksa]”, n.d.).

수입 견직물은 13종 이상으로 조직에 따라 평직, 평직 또는 능직, 주자직, 익직, 크레이프, 기타로 분류되

었다. 평직으로는 우이중(羽二重; habutae), 호박직(琥珀織; taffetas), 견주(絹紬, pongee)가 있었다. 우이중은 2개의 가느다란 경사를 1개의 중광에 넣어 평직으로 제직한 견직물로, 부드럽고 가벼우며 광택이 있어 일본 옷의 안감으로 최고급으로 여겨지며 예복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옷감이다(“羽二重 [Habutae]”, 2020). 한국에서도 일본어 그대로 표기되었다(Table 2). 호박직은 경사에 가느다란 실을, 위사에 굵은 실을 이용하여 평직으로 제직하여 가로 방향의 이랑을 나타낸 견직물로, 두꺼운 것은 허리띠[帶]나 하카마[袴]에 이용되며, 얇은 것은 ‘타프타’라 불리며 부인복에 주로 이용되는 천이다(“琥珀織 [Taffetas]”, n.d.). 「해관세칙」에서는 호박직 대신 호박견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호박견의 영문은 ‘habutai’로 되어 있다(Kim, 2018). 그러나 ‘habutai’ 또는 ‘habutae’는 우이중의 일본어 발음이

Table 2. Silk cloths imported from Japan

Types	English name	Japanese name (Korean name)*	First import year	Production place	
Yarn	Dupion	玉絲	1909	J	
	Silk yarns, spun	紡績絹織絲	1910	J	
Tabby	Habutae	羽二重 (羽二重)*	1895	J	
	Taffetas	琥珀織 (琥珀絹)*	1908	J	
	Pongee	絹紬	1884	F	
Tabby or twill	Kaiki	甲斐絹 (海黃, 郡内)*	1877	J	
Satin	Satins	縐子 (縐子)*	1884/1910	F/J	
Gauze	Ro or silk lenoes	絹 (絹紬)*	1910	J	
Fabric	Crape	Crapes /silk piece goods, chirimen	縮緬 (縮紗)*	1892/1894	F/J
	Others	Silk piece goods, unenum /silk piece goods /other silk piece goods	(其他)(諸)絹布類	1877/1884	J/F
Cotton mixtures		Silk tissues, embroidered	刺繡絹布	1900	J
		Silk and cotton mixtures	絹綿布	1884	J/F
	Tabby or twill	Kaiki, of cotton in part	甲斐絹 綿入ノ	1904	J
	Satin	Silk faced cotton satins	絹綿縐子	1884/1904	F/J
	Pile weave	Plush or velvets, silk and cotton mixtures	絹綿天鵝絨	1901	F

Taken from the same sources as <Table 1>.

\*: Korean names are taken from Kim's (2018) study.

므로, 「해관세칙」의 호박견 기록에서는 영문 표기의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견주는 야잠견인 작잠사(柞蠶絲)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제작한 견직물로 표면에 마디가 나타나 있는 특징이 있다(“網絨 [Pongee]”, n.d.). 중국 산둥성산이 유명하며 한국에서는 산둥실크라고도 불리는 천이다.

평직 또는 능직 견직물로는 갑비견(甲斐絹; kaiki)이 개항 직후인 1877년부터 1910년까지 꾸준히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갑비견은 일본 군내(郡内) 지방에서 생산되는 견직물로 근세 초기 남만선(南蠻船)을 통해 도래한 평직 견직물인 해귀(海貴, かいき)를 본떠서 제조한 천이다. 처음에는 군내해귀(郡内海貴)로 불렸으며, 해귀 대신 해기(海氣), 해황(海黃), 개기(改機) 등으로도 표기되다가 메이지[明治] 이후에 갑비견(かいき)이라는 표기가 주로 사용되었다(“甲斐絹 [Kaiki]”, n.d.). 「해관세칙」에서는 갑비견 대신 해황, 군내의 기록이 있었는데, 해황은 ‘kaiki’로, 군내는 ‘gunnai’로 영문 표기되었다(Table 2). 갑비견은 경위사 모두 연직사를 사용하며 경사와 위사를 1:2의 비율로 평직 또는 능직으로 제작하는데, 매끄럽고 광택이 있어 하오리[羽織]의 안감이나 침구, 방석, 보자기 등에 주로 이용된다(“甲斐絹 [Kaiki]”, n.d.).

주자직으로는 주자(繻子; satins), 익직으로는 러(縞; ro or silk lenoes), 크레이프로는 축면(縮緬; crapes/silk piece goods, chirimen)이 수입되었다. 그 외, 조직을 판정하기 어렵거나 견직물의 총칭을 기타로 분류했는데, 여기에 (기타)(제)견포류((其他)(諸)絹布類; silk piece goods, unenum/silk piece goods/other silk piece goods)와 자수견포(刺繡絹布; silk tissues, embroidered)가 포함되었다.

수입된 견직물 가운데 일부는 견면교직으로 생산된 것도 있었다. 원문의 흐름을 따라 이들 직물도 모두 수입 견직물에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견면교직으로는 견면포(絹綿布; silk and cotton mixtures), 갑비견(甲斐絹綿入ノ; Kaiki, of cotton in part), 견면주자(絹綿繻子; silk faced cotton satins), 견면천아옹(絹綿天鵝絨; plush or velvets, silk and cotton mixtures)이 확인되었다.

### 3) 모직물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모사 및 모직물의 종류는 <Table 3>에 정리된 바와 같다. 수입 모사로는 모사(毛絲; woollen and worsted yarns) 1종류가 확인되었

다. 수입 모직물은 16종 이상으로 견직물보다 종류가 다양했으나 일본산이 전혀 없고 모두 외국산이었다.

평직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의 모직물로 캄릿(カムレット/吳呂; camlets), 플란넬(フランネル; flannels), 라사(羅紗; woollen cloths)가 있었다. 캄릿은 낙타나 양고라 염소 털을 사용하여 주로 평직으로 짜며 외투용으로 이용되는 천이다(“カムレット [Camlet]”, n.d.). 플란넬은 소모사로 제작한 후 기모 가공(napping)한 모직물로, 평직 또는 능직으로 제작되며, 기모로 인해 조직이 잘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Lee et al., 1998). 라사는 경위사 모두 방모사를 사용한 방모 직물의 일종으로, 조직은 평직, 능직, 주자직 등 다양하며, 제작 후에 기모, 축융, 전모한 두꺼운 모직물이다. 보온성이 필요한 남성복이나 코트감으로 주로 이용된다(“羅紗 [Wollen cloths]”, n.d.).

능직으로 래스팅(綾吳呂; lastings), 롱엘(纈伊多; long ells), 서지(セルヂス; serges)가 있었다. 래스팅은 면사 또는 소모사의 강연사로 단단하고 촘촘하게 짠 천으로, 견고하여 신발 깔감이나 가방 안감, 보호복 등에 이용된다(Mitchell, n.d.-b). 능오려(綾吳呂)라는 한자 표기로 볼 때 능직으로 추정된다. 롱엘은 소모사의 강연사를 경사로, 굵은 소모사 또는 방모사를 위사로 사용하여 능직으로 짠 후 방축 및 기모 가공한 두껍고 촉감이 거친 모직물이다(“롱 엘스 [Long ells]”, 2001). 서지는 소모사를 사용하여 능직으로 짠 모직물로 군복, 양복, 코트 등에 주로 이용된다(“Serge”, 2021).

크레이프로 모슬린 드 레인(縮緬吳呂; mousseline de laine)이 있었다. 모슬린 드 레인은 프랑스어로 ‘울 모슬린’이라는 뜻이며 소모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짠 가볍고 얇은 모직물이다(“무슬린 드 레네 [Mousseline de laine]”, 1997), 축면오려(縮緬吳呂)라는 한자 표기로 볼 때 크레이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조직을 판정하기 어렵거나 모직물의 총칭을 기타로 분류했는데, 여기에 차이나 피겨(絞吳呂; China figures), 알파카(アルパカ; alpacas), 제모포류/모포잡류/기타모포(諸毛布類/毛布雜類/其他ノ手布; woollen piece goods, unenum(or all other)/all other woollen tissues/all other woollen and worsted tissues)가 포함되었다. 차이나 피겨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중국적 무늬가 있는 모직물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된다. 알파카는 남미 낙타과 포유류인 알파카의 털을 섞어서 짠 천이다.

수입 모직물 가운데 일부는 모면교직으로 생산된



Table 3. Woollen cloths imported from Japan

Types	English name	Japanese name (Korean name)*	First import year	Production place	
Yarn	Woollen and worsted yarns	毛絲	1887/1910	F/J	
Tabby	Camlets	カムレット/吳呂 (純羽緞)*	1884	F	
Tabby or twill	Flannels	フランネル	1884	F	
Tabby or twill or satin	Woollen cloths	羅紗 (毛哆囉呢)*	1884	F	
	Lastings	綾吳呂 (斜紋羽緞)*	1885	F	
Twill	Long ells	癩世伊多 (絨呢, 羅世板)*	1886	F	
	Serges	セルヂス (絨呢, 塞爾寔斯)*	1886	F	
Crape	Mousseline de laine	縮緬吳呂 (縐羽緞)*	1884	F	
Fabric	China figures	紋吳呂	1884	F	
	Alpacas	アルパカ (絨布, 阿爾巴哈)*	1908	F	
	Others	Woollen piece goods, unenum (or all other) /all other woollen tissues /all other woollen and worsted tissues	諸毛布類 /毛布雜類 /其他ノ手布	1877	F
		All other woollen and cotton Mixtures /all other woollen and cotton tissues	其他諸毛綿布類 /毛綿布雜類	1884	F
	Woollen cloths in part of wool	羅紗(綿入ノ)	1885	F	
Cotton mixtures	Tabby	Lustres	ロストルス	1885	F
	Tabby or twill	Orleans	オルレンス	1877	F
	Twill	Italian cloths	毛縐子 /イタリアンクロス (毛縐子)*	1884	F
	Gauze	Balzarine	紹吳呂	1884	F

Taken from the same sources as <Table 1>.

\*: Korean names are taken from Kim's (2018) study.

것도 있었는데 이들도 모두 수입 모직물에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모면교직으로 표기된 것으로 기타제모면포류/모면포잡류(其他諸毛綿布類/毛綿布雜類; all other woollen and cotton mixtures/all other woollen and cotton tissues)와 면혼방 라사(羅紗(綿入ノ); woollen cloths in part of wool)가 있었다.

모면교직으로 표기되지는 않았으나, 실제 모면교직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직물로 러스터(ロストルス;

lustres), 올리언스(オルレン스; orleans), 이탈리아인 클로스(毛縐子/イタリアンクロス; Italian cloths), 발자린(紹吳呂: balzarine) 등이 있었다. 러스터는 면사를 경사로, 광택이 있는 소모사나 모헤어 또는 알파카사를 위사로 사용하여 주로 평직으로 짠 직물이다(“러스터 패브릭 [Luster fabric]”, 2001). 올리언스는 면사를 경사로, 소모사를 위사로 사용하여 평직 또는 능직으로 짠 천으로 광택이 있다(“러스터 올리언스 [Luster or-

leans]”, 2001). 이탈리아안 클로스는 면사를 경사로, 모사를 위사로 사용하여 능직으로 짠 천으로 매끈하고 광택이 있어 의복의 안감에 주로 이용된다(“毛織子 [Italian cloths]”, n.d.). 한자로 모주자(毛織子)로 표기되나 주자직이 아니라 능직인 것이 특이하다. 발자린은 주로 면사를 경사로, 소모사를 위사로 사용하여 짠 가벼운 천으로 여름용 드레스에 이용된다(Mitchell, n.d.-a). 러오려(縹吳呂)라는 한자 표기로 볼 때 여직으로 추정된다.

한편, 캠퍼, 래스팅, 모슬린드 레인, 차이나 피겨, 발자린은 영문명이 제각각이지만 일본 한자어로 오려, 능오려, 축면오려, 문오려, 러오려와 같이 주로 ‘오려(吳呂)’로 표기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캠퍼, 래스팅, 모슬린드 레인은 한국 한자어로 순우단, 사문우단, 추우단과 같이 주로 ‘우단(羽織)’으로 표기되었다(Table 3). 현대 한국어에서 우단은 주로 파일직물인 벨벳(velvet)이나 벨베티(velveteen)을 일컫고 있으나, 19세기 말에는 다양한 외관의 모직물에도 사용된 용어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2. 직물 수입 상품의 무역 특성

### 1) 직물 총수입액과 직물 유형별 총수입액 비중

1877년 7월부터 1910년까지 8월까지 개항기 약 34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직물 총수입액은 90,518,331 엔으로 집계되었다(Table 4). 이는 대일 무역 전체 총수입액(268,283,150엔)의 33.7%에 해당하는 수치로 개항기 대일 수입 무역에서 직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물 유형별로 34년간의 총수입액을 살펴보면, 면직물은 84,686,653엔, 견직물은 2,805,705엔, 모직물은 1,362,556엔으로 집계되었다(Table 5)-(Table 6). 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결과는 <Fig. 1>과 같다. 면직물은 직물 총수입액의 93.6%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견직물 3.1%, 모직물 1.5%, 마직물 0.1% 순으로 나타났다. 면직물의 비중이 대단히 높았으며, 마직물의 비중이 가장 미미하였다.

개항기 대외 직물 수입무역의 특성을 고찰한 Kim (2018)의 연구에 의하면, 개항기(1882~1910년) 약 29년 동안 조선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직물의 총수입액 규모가 가장 큰 직물 유형은 면직물(16,039,084파운드, 82.7%)이며, 그 다음으로 견직물(1,988,601파운드, 10.3%), 마직물(1,195,631파운드, 6.2%), 모직물(169,842파운드, 0.9%) 순인 것으로 집계된다. 대일 수입 무역에서는 모직물의 비중이 마직물보다 높게 나타나, 대외 수입 무역 경향과 차이가 있었다. 대외 수입 무역에서 마직물의 비중이 모직물보다 6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일 수입 무역에서는 마직물의 비중이 모직물의 1/15 수준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마직물은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와의 무역 거래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 2) 직물 수입액의 연도별 변화와 원산지 분석 결과

#### (1) 직물 수입액 변화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모든 직물의 수입액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의 좌측에 정리된 바와 같다. 직물 수입액이 대일 무역 수입액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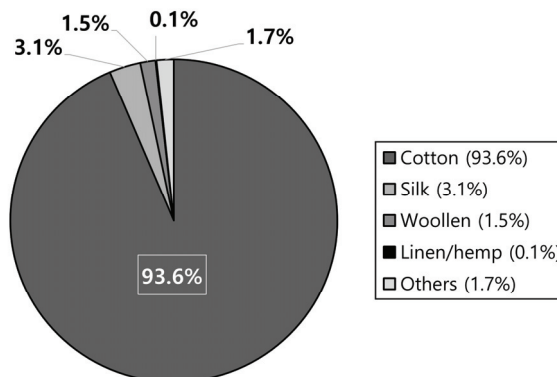


Fig. 1. Total import value percentage by type of imported cloths.

Taken from the same sources as <Table 1>.

Table 4. Import value and percentage of all cloths

Year	All cloths import				Total import			
	Japanese production	Foreign production	All cloths import	Percent to total import	Japanese production	Foreign production	Total import	Per-cent
	Yen (%)	Yen (%)	Yen	%	Yen (%)	Yen (%)	Yen	%
1877 (7-12)	9,416 ( 16.4)	47,950 ( 83.6)	57,366	45.3	70,088 ( 55.4)	56,481 ( 44.6)	126,569	100.0
1878	15,278 ( 8.4)	166,033 ( 91.6)	181,311	74.1	49,912 ( 20.4)	194,632 ( 79.6)	244,545	100.0
1879	8,102 ( 1.7)	474,114 ( 98.3)	482,216	85.1	49,591 ( 8.7)	517,364 ( 91.3)	566,955	100.0
1880	18,480 ( 2.4)	767,778 ( 97.6)	786,258	80.4	114,622 ( 11.7)	863,392 ( 88.3)	978,014	100.0
1881	53,255 ( 3.3)	1,569,906 ( 96.7)	1,623,161	83.5	200,726 ( 10.3)	1,744,011 ( 89.7)	1,944,737	100.0
1882	19,964 ( 1.4)	1,374,585 ( 98.6)	1,394,549	81.6	190,220 ( 11.1)	1,518,217 ( 88.9)	1,708,437	100.0
1883	26,746 ( 2.7)	956,004 ( 97.3)	982,750	44.4	904,335 ( 40.9)	1,307,534 ( 59.1)	2,211,869	100.0
1884	29,258 ( 17.6)	137,419 ( 82.4)	166,677	36.9	216,649 ( 48.0)	234,682 ( 52.0)	451,331	100.0
1885	48,166 ( 30.6)	109,140 ( 69.4)	157,306	34.1	233,309 ( 50.6)	227,414 ( 49.4)	460,724	100.0
1886	34,947 ( 43.4)	45,513 ( 56.6)	80,460	9.7	701,154 ( 84.5)	128,162 ( 15.5)	829,316	100.0
1887	57,181 ( 41.8)	79,515 ( 58.2)	136,697	24.8	360,612 ( 65.3)	191,296 ( 34.7)	551,908	100.0
1888	63,142 ( 68.3)	29,285 ( 31.7)	92,427	13.1	559,358 ( 79.1)	147,817 ( 20.9)	707,175	100.0
1889	94,247 ( 83.7)	18,374 ( 16.3)	112,621	10.3	887,099 ( 81.2)	205,897 ( 18.8)	1,092,996	100.0
1890	133,561 ( 80.3)	32,693 ( 19.7)	166,254	13.3	1,021,856 ( 81.7)	228,857 ( 18.3)	1,250,713	100.0
1891	180,386 ( 82.9)	37,260 ( 17.1)	217,645	14.8	1,267,276 ( 86.4)	198,764 ( 13.6)	1,466,040	100.0
1892	81,599 ( 78.0)	22,952 ( 22.0)	104,551	7.4	1,229,821 ( 87.2)	180,878 ( 12.8)	1,410,699	100.0
1893	50,568 ( 85.0)	8,946 ( 15.0)	59,514	4.6	1,090,175 ( 83.8)	211,068 ( 16.2)	1,301,243	100.0
1894	422,340 ( 84.4)	78,036 ( 15.6)	500,377	21.2	1,957,926 ( 82.8)	407,185 ( 17.2)	2,365,112	100.0
1895	1,419,673 ( 94.5)	82,492 ( 5.5)	1,502,165	39.2	3,425,028 ( 89.4)	406,449 ( 10.6)	3,831,477	100.0
1896	1,377,988 ( 97.7)	33,130 ( 2.3)	1,411,118	41.9	3,065,339 ( 91.0)	302,355 ( 9.0)	3,367,693	100.0
1897	2,196,857 ( 97.1)	64,564 ( 2.9)	2,261,422	43.5	4,680,255 ( 90.1)	516,318 ( 9.9)	5,196,573	100.0
1898	2,703,903 ( 97.6)	65,285 ( 2.4)	2,769,188	47.4	5,269,044 ( 90.2)	575,288 ( 9.8)	5,844,332	100.0
1899	4,047,227 ( 98.9)	43,363 ( 1.1)	4,090,590	58.5	6,538,091 ( 93.5)	457,840 ( 6.5)	6,995,931	100.0
1900	6,164,388 ( 98.7)	84,053 ( 1.3)	6,248,442	62.7	9,428,821 ( 94.7)	529,451 ( 5.3)	9,958,272	100.0
1901	5,106,988 ( 95.2)	254,776 ( 4.8)	5,361,763	47.1	10,410,563 ( 91.5)	961,987 ( 8.5)	11,372,551	100.0
1902	4,388,158 ( 96.6)	154,373 ( 3.4)	4,542,531	43.0	9,344,850 ( 88.5)	1,209,332 ( 11.5)	10,554,183	100.0
1903	3,782,703 ( 96.9)	120,088 ( 3.1)	3,902,791	33.2	10,520,222 ( 89.4)	1,241,272 ( 10.6)	11,761,494	100.0
1904	5,703,143 ( 96.4)	213,735 ( 3.6)	5,916,879	29.0	18,754,309 ( 92.0)	1,635,420 ( 8.0)	20,389,728	100.0
1905	8,827,329 ( 99.1)	84,218 ( 0.9)	8,911,547	33.5	25,542,174 ( 96.0)	1,076,695 ( 4.0)	26,618,870	100.0
1906	6,699,604 ( 99.3)	45,466 ( 0.7)	6,745,070	26.8	24,245,231 ( 96.2)	964,565 ( 3.8)	25,209,796	100.0
1907	10,414,672 ( 99.3)	75,620 ( 0.7)	10,490,292	32.0	31,680,877 ( 96.6)	1,111,599 ( 3.4)	32,792,476	100.0
1908	8,254,538 ( 99.4)	48,166 ( 0.6)	8,302,704	27.4	29,569,113 ( 97.7)	704,058 ( 2.3)	30,273,171	100.0
1909	6,689,152 ( 99.5)	33,303 ( 0.5)	6,722,455	24.9	26,574,313 ( 98.4)	423,529 ( 1.6)	26,997,842	100.0
1910 (1-8)	3,997,317 ( 99.0)	39,919 ( 1.0)	4,037,236	23.1	17,021,189 ( 97.5)	429,191 ( 2.5)	17,450,380	100.0
Total	83,120,278 ( 91.8)	7,398,053 ( 8.2)	90,518,331	33.7	247,174,149 ( 92.1)	21,109,001 ( 7.9)	268,283,150	100.0

Taken from the same sources as <Table 1>.

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항 초기(1877~1883년)에 44~8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1901년 이후에도 여전히 20~40%대를 차지할 만큼 직물은 일본과의 무역 거래에서 중요한 상품이었다.

가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1877년부터 1910년까지 식물 수입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거래액이 적은 해(1877년, 1893년)에는 약 5만 엔대, 많은 해(1907년)에는 천만 엔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식물 수입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일본과의 무역 거래에서 시간이 갈수록 식물류 이외에 다른 제품군의 수입도 많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식물 수입액의 변화에서 다소 특이한 점은 1884년부터 1893년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에는 식물 수입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벗어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식물 수입액이 약 5만~20만 엔대로 매우 저조하였다. 이는 1882년 미국, 중국과, 그리고 1883년 영국과 통상을 시작하여 조선의 무역 상대국이 다원화되면서 개항 초기 발생했던 일본과의 독점 무역 상황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어 초래된 결과로 생각된다. 수입무역 다원화로 인한 대일 수입 무역 감소가 직물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식물 수입액을 일본산과 외국산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항기 약 34년 동안의 전체적 경향을 보면, 일본산 직물이 91.8%, 외국산 직물이 8.2%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일본산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Table 4). 이러한 경향은 직물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 전체를 볼 때도 거의 유사한 비율(일본산 92.1%, 외국산 7.9%)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은 90% 이상이 일본산이었음이 확인된다.

일본산 직물과 외국산 직물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개항 초기(1877~1883년)에는 일본산이 1~16%, 외국산이 84~99%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산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그러나 1886년 처음으로 일본산 직물이 40%대를 넘어서고, 1888년에 60%대, 1889년에 80%대를 기록하면서 1880년대 후반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80%대의 비율은 1890년대 전반기까지 이어지다가, 1895년 약 95%로 증가하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99%까지 도달하게 된다. 일본산

직물의 수입액 증가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의 직물 산업 발달과 그로 인한 생산량 증대, 그리고 수출 시장 확대에 의한 결과로 이해된다.

직물류와 다른 제품군을 포괄한 전체 수입품의 수입액도 개항 초기(1877~1883년)에 외국산의 비율이 45~91%로 1877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외국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시간이 갈수록 일본산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직물류는 개항 초기에 외국산이 84~99%였으므로 다른 제품군에 비해 개항 초기 외국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직물 수입 무역에 있어서 개항 초기 일본의 중개 무역 국가로서의 입지를 여실히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 (2) 면직물의 수입액 변화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면직물의 수입액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에 정리된 바와 같다. 면직물은 식물 수입품 가운데 가장 비중 있는 품목이다. 개항 초기(1877~1883년) 면직물의 수입액은 식물 수입액의 82~98%를 차지하며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면직물은 1884년과 1885년 76%대를 보인 후, 점차 비중이 줄어들어 1889년 21.1%로 최저치를 나타내었다. 이후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며 1894년에는 다시 72%대를 회복하였다. 1884년부터 1894년까지 11년의 기간 동안에는 면직물의 수입 비중이 다소 줄어들고 견직물의 수입 비중이 그만큼 증가하였다(Table 6). 그러나 면직물은 1895년에 다시 91.0%의 높은 비중을 회복했으며, 이후 1910년까지 지속적으로 90% 이상을 차지하며 대일 식물 수입 무역에서 가장 비중 있는 품목의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하였다.

가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1877년부터 1910년까지 면직물 수입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거래액이 적은 해(1889년)에는 약 2만 엔대, 많은 해(1907년)에는 9백만 엔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면직물의 수입액은 1884년부터 1894년까지 약 2만~30만 엔대로 특히 저조한 편이었다. 앞서 식물 수입액 변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84년 이후 10년은 식물 수입액이 전반적인 증가 추세에서 벗어나 대일 식물 수입 자체가 매우 저조한 시기였다. 이 시기는 대일 식물 수입 무역의 침체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의 특성이 면직물 수입 무역에서도 함께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직물 수입액을 일본산과 외국산으로 나누어 살

Table 5. Import value and percentage of cotton cloths

Cotton cloths import					Cotton cloths import						
Year	Japanese production	Foreign production	Cotton cloths import	Percent to total import & to all cloths import		Year	Japanese production	Foreign production	Cotton cloths import	Percent to total import & to all cloths import	
				Yen (%)	Yen (%)					Yen	%
1877 (7-12)	0 ( 0.0)	47,134 (100.0)	47,134	37.2	82.2	1894	305,851 ( 84.5)	55,975 ( 15.5)	361,826	15.3	72.3
1878	0 ( 0.0)	165,210 (100.0)	165,210	67.6	91.1	1895	1,309,667 ( 95.9)	56,562 ( 4.1)	1,366,228	35.7	91.0
1879	0 ( 0.0)	473,668 (100.0)	473,668	83.5	98.2	1896	1,282,344 ( 98.5)	19,011 ( 1.5)	1,301,355	38.6	92.2
1880	0 ( 0.0)	758,311 (100.0)	758,311	77.5	96.4	1897	2,090,895 ( 97.9)	44,500 ( 2.1)	2,135,395	41.1	94.4
1881	0 ( 0.0)	1,527,547 (100.0)	1,527,547	78.5	94.1	1898	2,589,955 ( 98.4)	42,583 ( 1.6)	2,632,539	45.0	95.1
1882	0 ( 0.0)	1,346,621 (100.0)	1,346,621	78.8	96.6	1899	3,932,318 ( 99.5)	18,997 ( 0.5)	3,951,315	56.5	96.6
1883	0 ( 0.0)	944,431 (100.0)	944,431	42.7	96.1	1900	6,011,953 ( 99.4)	37,378 ( 0.6)	6,049,330	60.7	96.8
1884	4,279 ( 3.4)	123,413 ( 96.6)	127,692	28.3	76.6	1901	4,905,581 ( 99.0)	41,496 ( 0.8)	4,947,077	43.5	92.3
1885	20,508 ( 17.1)	99,638 ( 82.9)	120,146	26.1	76.4	1902	4,218,883 ( 99.4)	42,786 ( 1.0)	4,261,669	40.4	93.8
1886	11,845 ( 22.7)	40,251 ( 77.3)	52,095	6.3	64.7	1903	3,659,233 ( 99.2)	28,670 ( 0.8)	3,687,903	31.4	94.5
1887	14,212 ( 17.6)	66,481 ( 82.4)	80,692	14.6	59.0	1904	5,528,238 ( 99.2)	101,291 ( 1.8)	5,629,528	27.6	95.1
1888	11,972 ( 35.7)	21,560 ( 64.3)	33,532	4.7	36.3	1905	8,496,842 ( 99.7)	27,826 ( 0.3)	8,524,668	32.0	95.7
1889	9,005 ( 37.8)	14,804 ( 62.2)	23,810	2.2	21.1	1906	6,484,298 ( 99.8)	13,410 ( 0.2)	6,497,708	25.8	96.3
1890	40,031 ( 60.4)	26,270 ( 39.6)	66,301	5.3	39.9	1907	9,789,826 ( 99.9)	10,796 ( 0.1)	9,800,622	29.9	93.4
1891	70,499 ( 68.1)	33,100 ( 31.9)	103,599	7.1	47.6	1908	7,780,091 (100.0)	3,748 ( 0.0)	7,783,839	25.7	93.8
1892	35,307 ( 61.2)	22,414 ( 38.8)	57,721	4.1	55.2	1909	6,130,199 ( 99.9)	8,525 ( 0.1)	6,138,724	22.7	91.3
1893	25,115 ( 74.6)	8,531 ( 25.4)	33,647	2.6	56.5	1910 (1-8)	3,641,548 ( 99.6)	13,223 ( 0.4)	3,654,771	20.9	90.5
Total						78,400,493 ( 92.6) 6,286,161 ( 7.4) 84,686,653 31.6 93.6					

Taken from the same sources as <Table 1>.

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항기 약 34년 동안의 전체 적 경향을 보면, 일본산 면직물이 92.6%, 외국산 면직 물이 7.4%를 차지하여 일본산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 타났다(Table 5).

일본산 면직물과 외국산 면직물의 비율을 연도별 로 살펴보면, 개항 초기(1877~1883년)에는 일본산이 전 혀 없고 외국산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877년 7월부터 1882년 6월까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유럽 산 수입품 중에서 영국산 면직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76%였다고 한다(Secretariat of the Ministry of Econo mic Affairs of Russia, 1900/1984). 따라서 개항 초기에 한국인들이 소비한 수입 면직물은 비록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었다 하더라도 상당수 영국산 면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면직물 가운데 일본산의 비중 은 1886년 처음으로 20%대를 넘었고, 1888년에 30% 대, 1890년에 60%대, 1894년에 80%대, 1895년에 90% 대를 기록하면서 1880년대 후반부터 1890년대 전반 까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직물 수입액에서 드러난 일본산 증가 비율과도 유사 한 패턴이다. 1886년 이후 10년의 기간은 면직물을 포 함한 직물 수입품의 일본산 급증기라고 할 수 있다. 일 본은 1867년 처음으로 근대 기계제 방직업을 도입했 고, 1880년대 전반에는 2000추(鍾) 규모의 방직공장

이 18여개로 늘어났으나 이 시기까지만 해도 여전히 방직공장의 사업 성공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했다(Miwa, 2002/2004). 그러나 1883년 1만 500추 규모의 대형공장인 오사카 방직회사의 설립을 계기로 대규모 방직회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1888년부터 대규모 방직회사가 급속히 증가하여 1890~1891년에는 마침내 일본의 면사 생산량이 면사 수입량을 넘어섰게 되었다(Miwa, 2002/2004). 당시 면방직 회사들은 대개 수입 역직기(力織機)를 설치하여 면직물 생산을 겸업하는 식으로 직물업을 공장제공업으로 발전시켰고, 역직기의 생산품은 주로 중국이나 한국으로 수출되었다(Miwa, 2002/2004).

일본산 면직물의 비중은 1895년에 95.9%, 1899년에 99.5%를 차지하면서 거의 100%에 이르게 된다. 거의 100%에 달하는 비중은 1910년까지 지속된다. 일본은 1890년대에 들어서 면방직업을 중심으로 자국의 산업혁명을 더욱 본격화하면서 일본산 직물의 수출 기반을 다지게 되었고(Miwa, 2002/2004), 1894년 청일 전쟁의 승리 이후 중국과의 무역 경쟁에서도 보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되었다(Park, 2014). 이러한 배경 하에, 1890년대 후반부터 일본산 면직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으로 확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개항기 초기에는 전무했던 일본산 면직물이 개항기 말기에는 대단히 많아지면서 국내 면직물 시장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견직물의 수입액 변화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견직물의 수입액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6> 좌측에 정리된 바와 같다. 견직물은 직물 수입품 가운데 두 번째로 비중 있는 품목으로, 개항 초기(1877~1883년) 견직물의 수입액은 직물 수입액의 1~16%를 차지하여 면직물에 비해 낮은 비율이었다. 그러나 견직물은 1884년부터 서서히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886년에 28.3%, 1887년에 31.1%를 넘기게 되었다. 이후 1888년에는 53.6%, 1889년에는 75.4%, 1890년에는 54.4%로 나타나 이들 3개 연도에서는 견직물 비율이 과반을 넘기면서 면직물보다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91년부터 1893년까지 3개 연도에서는 견직물의 비율이 비록 면직물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40%대의 비견할 만한 비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1894년에는 견직물의 비율이 다소 줄어들어 19.2%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앞서 면직물의 수입액 변화에서, 1884년부터 1894년

까지 11년의 기간 동안에 면직물의 수입 비중이 줄고 그만큼 견직물의 비중이 늘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Table 5>-<Table 6>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경향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견직물의 수입액은 1895년 6.2%를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여 1904년 1.4%까지 이르게 되고, 이후 조금 증가하여 개항기 말기에는 직물류 수입액 3%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1877년부터 1910년까지 견직물 수입액은 특별한 저조기 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거래액이 적은 해(1878년)에는 약 5천 엔대, 많은 해(1909년)에는 20만 엔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일 수입 무역에서 견직물의 수입액은 면직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었다. 일제강점기 이전 견직물의 수입은 약 90%가 중국으로부터, 나머지 10%가 일본과 기타 국가로부터였는데, 당시 중국산 견직물은 가격이 저렴한 편이어서 다른 국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었다고 한다(Park, 2014).

견직물 수입액을 일본산과 외국산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항기 약 34년 동안의 전체적 경향을 보면, 일본산 견직물이 99.0%, 외국산 견직물이 1.0%를 차지하여 일본산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견직물은 면직물이나 모직물보다 일본산의 비중이 더욱 높았다.

일본산 견직물과 외국산 견직물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개항 초기(1877~1883년)에는 외국산이 전혀 없고 전부 일본산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면직물과는 정반대의 경향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견직물 가운데 일본산은 1903년(90.3%) 한 해를 제외하고, 1886년부터 개항기 말기까지 모든 연도에서 97~100%를 유지할 만큼 개항기 내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면직물의 경우 일본산이 1880년대 후반부터 1890년대 전반까지 급격한 증가 추세로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견직물의 경우에는 일본산이 특정한 급증기 없이 개항기 34년 동안(1884, 1885, 1903년 3개 연도 제외) 꾸준히 97~100%의 대단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견직물은 대부분 일본에서 생산된 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 (4) 모직물의 수입액 변화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모직물의 수입액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6> 우측에 정리된 바와 같다. 모직물은 직물 수입품 가운데 세 번째로 비중 있는 품목으로, 1901년(3.9%), 1904년(1.7%), 1910년(3.9%)

Table 6. Import value and percentage of silk cloths and woollen cloths

Year	Silk cloths import					Woollen cloths import				
	Japanese production	Foreign production	Silk cloths import	Percent to total import & to all cloths import		Japanese production	Foreign production	Woollen cloths import	Percent to total import & to all cloths import	
	Yen (%)	Yen (%)	Yen	%	%	Yen (%)	Yen (%)	Yen	%	%
1877 (7-12)	9,410 (100.0)	0 ( 0.0)	9,410	7.4	16.4	0 ( 0.0)	284 (100.0)	284	0.2	0.5
1878	5,629 (100.0)	0 ( 0.0)	5,629	2.3	3.1	0 ( 0.0)	396 (100.0)	396	0.2	0.2
1879	6,322 (100.0)	0 ( 0.0)	6,322	1.1	1.3	0 ( 0.0)	172 (100.0)	172	0.0	0.0
1880	18,000 (100.0)	0 ( 0.0)	18,000	1.8	2.3	0 ( 0.0)	7,345 (100.0)	7,345	0.8	0.9
1881	52,837 (100.0)	0 ( 0.0)	52,837	2.7	3.3	0 ( 0.0)	37,039 (100.0)	37,039	1.9	2.3
1882	19,964 (100.0)	0 ( 0.0)	19,964	1.2	1.4	0 ( 0.0)	18,214 (100.0)	18,214	1.1	1.3
1883	24,416 (100.0)	0 ( 0.0)	24,416	1.1	2.5	0 ( 0.0)	7,710 (100.0)	7,710	0.3	0.8
1884	22,066 ( 77.8)	6,284 ( 22.2)	28,350	6.3	17.0	0 ( 0.0)	5,100 (100.0)	5,100	1.1	3.1
1885	27,510 ( 95.8)	1,198 ( 4.2)	28,708	6.2	18.2	0 ( 0.0)	5,652 (100.0)	5,652	1.2	3.6
1886	22,227 ( 97.5)	578 ( 2.5)	22,805	2.7	28.3	0 ( 0.0)	2,582 (100.0)	2,582	0.3	3.2
1887	42,134 ( 99.1)	384 ( 0.9)	42,519	7.7	31.1	0 ( 0.0)	7,486 (100.0)	7,486	1.4	5.5
1888	49,219 ( 99.3)	350 ( 0.7)	49,569	7.0	53.6	0 ( 0.0)	3,358 (100.0)	3,358	0.5	3.6
1889	84,744 ( 99.9)	119 ( 0.1)	84,863	7.8	75.4	0 ( 0.0)	771 (100.0)	771	0.1	0.7
1890	90,357 ( 99.9)	56 ( 0.1)	90,413	7.2	54.4	0 ( 0.0)	2,585 (100.0)	2,585	0.2	1.6
1891	97,137 ( 99.9)	110 ( 0.1)	97,247	6.6	44.7	0 ( 0.0)	1,205 (100.0)	1,205	0.1	0.6
1892	41,644 ( 99.9)	167 ( 0.4)	41,812	3.0	40.0	0 ( 0.0)	84 (100.0)	84	0.0	0.1
1893	24,786 (100.0)	3 ( 0.0)	24,788	1.9	41.7	0 ( 0.0)	124 (100.0)	124	0.0	0.2
1894	95,411 ( 99.5)	474 ( 0.5)	95,885	4.1	19.2	0 ( 0.0)	10,826 (100.0)	10,826	0.5	2.2
1895	91,422 ( 99.8)	1,133 ( 1.2)	92,556	2.4	6.2	0 ( 0.0)	20,325 (100.0)	20,325	0.5	1.4
1896	80,075 ( 99.0)	837 ( 1.0)	80,912	2.4	5.7	0 ( 0.0)	7,214 (100.0)	7,214	0.2	0.5
1897	86,792 ( 99.2)	717 ( 0.8)	87,509	1.7	3.9	0 ( 0.0)	10,318 (100.0)	10,318	0.2	0.5
1898	95,598 ( 99.2)	734 ( 0.8)	96,332	1.6	3.5	0 ( 0.0)	16,504 (100.0)	16,504	0.3	0.6
1899	87,926 (100.0)	6 ( 0.0)	87,932	1.3	2.1	0 ( 0.0)	18,542 (100.0)	18,542	0.3	0.5
1900	117,517 (100.0)	0 ( 0.0)	117,517	1.2	1.9	0 ( 0.0)	41,755 (100.0)	41,755	0.4	0.7
1901	147,817 ( 99.7)	428 ( 0.3)	148,245	1.3	2.8	0 ( 0.0)	210,760 (100.0)	210,760	1.9	3.9
1902	144,446 ( 96.6)	5,041 ( 3.4)	149,487	1.4	3.3	0 ( 0.0)	77,554 (100.0)	77,554	0.7	1.7
1903	77,473 ( 90.3)	8,360 ( 9.7)	85,834	0.7	2.2	0 ( 0.0)	63,630 (100.0)	63,630	0.5	1.6
1904	79,226 ( 98.6)	1,090 ( 1.4)	80,316	0.4	1.4	0 ( 0.0)	99,637 (100.0)	99,637	0.5	1.7
1905	164,395 ( 99.3)	1,126 ( 0.7)	165,521	0.6	1.9	0 ( 0.0)	33,606 (100.0)	33,606	0.1	0.4
1906	115,982 ( 99.8)	216 ( 0.2)	116,198	0.5	1.7	0 ( 0.0)	14,239 (100.0)	14,239	0.1	0.2
1907	201,806 (100.0)	0 ( 0.0)	201,806	0.6	1.9	141,333 ( 77.4)	41,243 ( 22.6)	182,576	0.6	1.7
1908	189,936 (100.0)	0 ( 0.0)	189,936	0.6	2.3	96,406 ( 76.1)	30,222 ( 23.9)	126,628	0.4	1.5
1909	226,662 (100.0)	0 ( 0.0)	226,662	0.8	3.4	155,764 ( 90.4)	16,507 ( 9.6)	172,271	0.6	2.6
1910 (1-8)	135,406 (100.0)	0 ( 0.0)	135,406	0.8	3.4	140,197 ( 89.8)	15,869 ( 10.2)	156,066	0.9	3.9
Total	2,776,294 ( 99.0)	29,411 ( 1.0)	2,805,705	1.0	3.1	533,700 ( 39.2)	828,856 ( 60.8)	1,362,556	0.5	1.5

Taken from the same sources as <Table 1>.

3개 연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연도에서 견직물보다 수입액 비율이 낮았다. 모직물의 수입액은 대개 직물 수입액의 0~5.5% 범위로 나타났다. 수입액 비율이 가장 높은 연도는 1887년(5.5%), 비율이 가장 낮은 연도는 1879년(0.0%)이었다.

가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개항 초기와 개항 말기를 비교해 볼 때 모직물의 수입액은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모직물 수입액의 증가는 지속적 증가세는 아니었다. 1892년(84엔)이나 1893년(124엔)과 같이 극단적 소액 규모를 보이는 연도도 있었으며, 단기간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다.

모직물 수입액을 일본산과 외국산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항기 약 34년 동안의 전체적 경향을 보면, 일본산 모직물이 39.2%, 외국산 모직물이 60.8%를 차지하여 외국산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6). 모직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직물 가운데 가장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라 할 수 있다.

일본산 모직물과 외국산 모직물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877년부터 1906년까지 30년의 기간 동안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모직물은 전부 외국산이었으며, 1907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일본산 모직물이 수입된 것이 확인된다. 모직물 무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이 외국산 제품의 중개 무역 국가의 입지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으며, 일본 내 모직물 산업의 발달은 다른 직물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개항기 대외 수입 무역에서 모직물의 수입액은 면직물, 견직물, 마직물 다음으로 4대 직물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이었다(Kim, 2018). 그러나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모직물의 수입액이 마직물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 일본 간 무역 거래에 있어서는 마직물보다 모직물의 비중과 중요성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모직물은 개항기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거주 증가 및 한국인의 양복 착용 확산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가 증가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양복점이 확산되면서 양복 제작에 필요한 모직물의 소비도 증가했을 것이다. 당시 양복점의 사업주는 한국인인 경우도 있었으나 일본인인 경우도 많았으며, 양복점에서는 대레복, 군복, 신사복 등을 제조 판매하였다(Kim, 2017). 대일 무역에서 마직물보다 모직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현상은 이들 양복점에서의 모직

물 소비 증가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본 대장성 관세국이 발행한 무역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면직물, 견직물, 모직물 상품의 종류를 살펴보고, 이들 직물 상품의 수입 무역 특성을 고찰하였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면직물, 견직물, 모직물 상품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개항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면직물은 생금건, 쇠금건, 색금건, 문금건, 비금건, 천축포, 한랭사, 갱사, 시팅, 농금건, 운제포, 면플란넬, 면주자, 면려, 면천아용, 면축, 제면포류, 기타순면포, 조선면포류, 지나면포류, 백목면, 색목면, 호목면, 와사사직 등 24종 이상이었으며, 견직물은 우이중, 호박직, 견주, 갑비견, 주자, 려, 축면, 기타제견포류, 자수견포, 견면포, 갑비면(면혼방), 견면주자, 견면천아용 등 13종 이상, 모직물은 캬릿, 플란넬, 라사, 래스팅, 룡엘, 서지, 모슬린 드 레인, 차이나 피겨, 알파카, 제모포류, 모면포잡류, 라사(면혼방), 러스터, 올리언스, 이탈리아안 클로스, 발자린 등 16종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면직물 상품의 종류가 가장 많았으나, 견직물과 모직물도 수입액 규모에 비해서는 상품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셋째, 조직으로 볼 때, 평직, 능직, 주자직, 익직, 파일직, 크레이프, 교직 등 현대에 볼 수 있는 기본 또는 변화 조직의 상품들이 다양하게 수입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으로 볼 때, 근대 한국인의 의복 재료가 매우 다양했으며 당시 직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직물 상품의 수입 무역 특성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개항기 34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직물의 총수입액은 대일 무역 전체 총수입액의 33.7%로 나타나 대일 수입 무역에서 직물류가 상당히 비중 있고 중요한 품목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면직물의 수입액이 93.6%를 차지하여 개항기 직물 무역에서 면직물 상품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또한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모직물의 거래액이 마직물의 15배로 나타나 모직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둘째, 개항기 34년 동안 일본으로부터의 직물 수입액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면직물과 견직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모직물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셋째, 1884년부터 1893년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직물 수입액이 매우 저조했는데, 이는 1882년 이후 조선의 무역상대국이 다원화되면서 초래된 대일 수입 무역의 감소가 직물에서도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1886년부터 1895년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에는 특히 일본산 직물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일본이 자국의 직물 생산력을 증대시켜 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일본산과 외국산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세 유형의 직물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면직물은 개항 초기에는 일본산이 전혀 없다가 1880년대 후반부터 1890년대 전반까지 일본산이 급격한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이후 일본산이 95% 이상으로 유지 확대되었다. 견직물은 개항 초기부터 전부 일본산이었으며, 개항기 내내 약 97~100%의 대단히 높은 비율로 일본산이 유지되고 있었다. 모직물은 개항 초기부터 이후 30년의 기간 동안 전부 외국산이었으며, 1907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일본산이 수입되었다. 이상으로 볼 때, 개항기 한국과 일본의 무역 관계에서 일본은 면직물 무역에 있어서는 중개 무역 국가의 입지를 탈피하는데 크게 성공했으며, 견직물 무역에서는 시종 일관 생산 수출 국가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직물 무역에서는 개항기 내내 중개 무역 국가의 입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References

- Bureau of Customs. (1909). 大日本外國貿易自明治元年至同十八年十八箇年對照表 [Returns of the foreign trade of Japan for the eighteen years from 1868 to 1885 inclusive. Tokyo: The Insetu Kioku. *National Diet Library Digital Collections*. Retrieved from <https://dl.ndl.go.jp/info:ndljp/pid/804286>
- Bureau of Customs. (1912). 大日本外國貿易年表 明治17年-明治43年 [Annual return of the foreign trade of the Empire of Japan, 1884-1910] (Bureau of Customs, Reprint). Tokyo: The Insetu Kioku. (Original work published 1885-1911). *National Diet Library Digital Collections*. Retrieved from <https://dl.ndl.go.jp/search/searchResult?searchWord=%E5%A4%A7%E6%97%A5%E6%9C%AC%E5%A4%96%E5%9B%BD%E8%B2%BF%E6%98%93%E5%B9%B4%E8%A1%A8&facetOpenedNodeIds=&featureCode=all&viewRestrictedList=0&pageNo=1>
- Choi, Y. G. (1973). 19세기말엽 韓日貿易에 관한 推計 및 分析 [Estimation and analysis of Korean-Japanese trade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경제논집*, 12(3), 130-182.
- Cotton yarn - What does combed, mercerised & gassed mean? (2017, April 5). *I Wool Knit*. Retrieved from <https://www.iwoolknit.com.au/blogs/tips-and-tricks/cotton-what-does-combed-mercerised-gassed-mean>
- Gong, S. B. (2013, April 15). 알기 쉬운 패션소재 - 벨벳, 벨루어, 벨베틴 이야기(2) [Easy-to-understand fashion materials - Velvet, Velour, Velveteen story (2)]. *The Korea Fashion & Textile News*. Retrieved from <https://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18>
- Hong, J.-Y. (2005). *The influx and acculturation of jewelry in Korea during 1876 to 1945*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S.-R. (1992). *피복재료학* (개정판) [Clothing materials (Rev. ed.)]. Seoul: Kyomunsa.
- Kim, S.-Y. (2017). Sales products and production/sales subjects of Korean modern tailor's sho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7(5), 89-107. doi:10.7233/jksc.2017.67.5.089
- Kim, S.-Y. (2018). Kinds and trade characteristics of imported clothing and textiles in Korea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8(8), 32-51. doi:10.7233/jksc.2018.68.8.032
- Kim, S.-Y., & Ha-Brookshire, J. E. (2016). How did industrial products change a society? Historical evidence of imported cotton cloth in Korea, 1882-1910.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4(2), 109-126. doi:10.1177/0887302X15610647
- Lee, H.-J., Rhie, J.-S., Yoo, H. J., Song, K. H., & Ahn, C. (1998). *21세기를 위한 의류소재의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clothing materials for the 21st century]. Seoul: Hyungseul Publishing.
- Mitchell, K. (n.d.-a). Balzarine. *Catwalk Yourself*. Retrieved from <http://www.catwalkyourself.com/fashion-dictionary/balzarine/>
- Mitchell, K. (n.d.-b). Lasting. *Catwalk Yourself*. Retrieved from <http://www.catwalkyourself.com/fashion-dictionary/lasting/>
- Miwa, R. (2004). *일본경제사: 근대와 현대* [Japanese economic history: Modern period] (H. K. Kwon, Trans.). Seoul: Bogo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2)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d.). *朝鮮國海關稅則* [Bylaws of customs of Joseon dynasty]. Retrieved from [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smla\\_038\\_0470](http://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smla_038_0470)
- Park, J.-K. (2014). *Change of Korean clothing custom due to the imported textiles from 1876 to 1945*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Secretariat of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of Russia.

- (1984). *국역 한국지* [Discription of Korea] (Date research department of Hanguk Jeongsin Munhwa Yeonguwon, S. Choi, & B. R Kim, Trans.). Seongnam: Hanguk Jeongsin Munhwa Yeonguwon. (Original work published 1900)
- Serge. (2021, July 27). *Wikipedia*.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Serge\\_\(fabric\)](https://en.wikipedia.org/wiki/Serge_(fabric))
- What is cotton satin? (2021, May 4). *ESSENZA HOME*. Retrieved from <https://www.essenzahome.com/inspiration/what-is-cotton-satin>
- Yoo, K. H. (2007). *근대 한국경제사: 한국경제의 근대화 과정* [Modern Korean economic history: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the Korean economy]. Seoul: Yupungchulpansa.
- 넌킨 [Nankeen]. (n.d.). *NAVER 사전-국어사전* [NAVER dictionary-Korean language dictionary]. Retrieved from <https://ko.dict.naver.com/#/entry/koko/138f2d9219d942d2ba6834ba944bea208>
- 러스티 올리언스 [Luster orleans]. (2001, September 29). *Textopia*. Retrieved from [http://super.textopia.or.kr:8090/new/ktidi2/ktidi2080?page=1&perPageNum=10&searchType=A&main\\_code=ENG&sub\\_code=L&keyword=%EC%98%AC%EB%A6%AC%EC%96%B8%EC%8A%A4](http://super.textopia.or.kr:8090/new/ktidi2/ktidi2080?page=1&perPageNum=10&searchType=A&main_code=ENG&sub_code=L&keyword=%EC%98%AC%EB%A6%AC%EC%96%B8%EC%8A%A4)
- 러스티 패브릭 [Luster fabric]. (2001, September 29). *Textopia*. Retrieved from [http://super.textopia.or.kr:8090/new/ktidi2/ktidi2080?page=1&perPageNum=10&searchType=A&main\\_code=ENG&sub\\_code=L&keyword=%EB%9F%AC%EC%8A%A4%ED%84%B0%20%ED%8C%A8%EB%B8%8C%EB%A6%AD](http://super.textopia.or.kr:8090/new/ktidi2/ktidi2080?page=1&perPageNum=10&searchType=A&main_code=ENG&sub_code=L&keyword=%EB%9F%AC%EC%8A%A4%ED%84%B0%20%ED%8C%A8%EB%B8%8C%EB%A6%AD)
- 롱 엘스 [Long ells]. (2001, September 29). *Textopia*. Retrieved from [http://super.textopia.or.kr:8090/new/ktidi2/ktidi2080?page=1&perPageNum=10&searchType=A&main\\_code=ENG&sub\\_code=L&keyword=Long%20ells](http://super.textopia.or.kr:8090/new/ktidi2/ktidi2080?page=1&perPageNum=10&searchType=A&main_code=ENG&sub_code=L&keyword=Long%20ells)
- 무슬린 드 레느 [Mousseline de laine]. (1997, August 25). *NAVER 지식백과-패션전문자료사전* [NAVER encyclopedia of knowledge-Dictionary of fashion materials]. Retrieved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8566&cid=50345&categoryId=50345>
- 옥사 [Oksa]. (n.d.). *표준국어대사전* [Standard Korean dictionary]. Retrieved from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239500&searchKeywordTo=3](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239500&searchKeywordTo=3)
- 甲斐絹 [Kaiki]. (n.d.). *코トバンク* [Kotobank]. Retrieved from <https://kotobank.jp/word/%E7%94%B2%E6%96%90%E7%B5%B9-42213>
- 更紗 [Chintz]. (n.d.). *코トバンク* [Kotobank]. Retrieved from <https://kotobank.jp/word/%E6%9B%B4%E7%B4%97-6915>
- 絹紬 [Pongee]. (n.d.). *코トバンク* [Kotobank]. Retrieved from <https://kotobank.jp/word/%E7%B5%B9%E7%B4%AC-60904>
- 金巾 [Shirting]. (n.d.). *코トバンク* [Kotobank]. Retrieved from <https://kotobank.jp/word/%E9%87%91%E5%B7%BE-45723>
- 羅紗 [Woollen cloths]. (n.d.). *코トバンク* [Kotobank]. Retrieved from <https://kotobank.jp/word/%E7%BE%85%E7%B4%97-656089>
- 綿糸 [Cotton balzarine]. (n.d.). *코トバンク* [Kotobank]. Retrieved from <https://kotobank.jp/word/%E7%B6%BF%E7%B5%BD-2087446>
- 綿縮 [Cotton crapes]. (n.d.). *코トバンク* [Kotobank]. Retrieved from <https://kotobank.jp/word/%E7%B6%BF%E7%B8%AE-644639>
- 綿フ란ネル [Cotton flannel]. (n.d.). *코トバンク* [Kotobank]. Retrieved from <https://kotobank.jp/word/%E7%B6%BF%E3%83%95%E3%83%A9%E3%83%B3%E3%83%8D%E3%83%AB-644711>
- 毛織子 [Italian cloths]. (n.d.). *코トバンク* [Kotobank]. Retrieved from <https://kotobank.jp/word/%E6%AF%9B%E7%B9%BB%E5%AD%90-489992>
- 羽二重 [Habutae]. (2020, February 11). *Wikipedia*. Retrieved from <https://ja.wikipedia.org/wiki/%E7%BE%BD%E4%B A%8C%E9%87%8D>
- 雲齋織 [Cotton drills]. (n.d.). *코トバンク* [Kotobank]. Retrieved from <https://kotobank.jp/word/%E9%9B%B2%E6%96%8E%E7%B9%94-442572>
- 天竺木綿 [T. cloths]. (n.d.). *코トバンク* [Kotobank]. Retrieved from <https://kotobank.jp/word/%E5%A4%A9%E7%AB%BA%E6%9C%A8%E7%B6%BF-578025>
- 寒冷紗 [Victoria lawns]. (n.d.). *코トバンク* [Kotobank]. Retrieved from <https://kotobank.jp/word/%E5%AF%92%E5%86%B7%E7%B4%97-22239>
- 琥珀織 [Taffetas]. (n.d.). *코トバンク* [Kotobank]. Retrieved from <https://kotobank.jp/word/%E7%90%A5%E7%8F%80%E7%B9%94-503690>
- カムレット [Camlet]. (n.d.). *코トバンク* [Kotobank]. Retrieved from <https://kotobank.jp/word/%E3%82%AB%E3%83%A0%E3%83%AC%E3%83%83%E3%83%88-466767>
- シーチング [Sheeting]. (n.d.). *코トバンク* [Kotobank]. Retrieved from <https://kotobank.jp/word/%E3%82%B7%E3%83%BC%E3%83%81%E3%83%B3%E3%82%B0-515949>

김 순 영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전북대학교 인간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